

세월호 특조위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정의당 답변

1.4.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(이하 세월호 특조위)의 활동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귀 정당에서는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.

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'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'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시점을 시작시점으로 봐야 할 것임.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상당기간 동안 위원회 예산 편성, 직원 파견을 둘러싼 정부의 비협조로 활동이 지체되었으므로 직원들이 처음으로 출근한 2015년 7월 27일을 시작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.

2.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월 19일 '4.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 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'(특검)를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했습니다. 특검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.

특검은 총선 직후에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4월 임시회를 열어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임.

3.현재 해양수산부는 7월 중으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이후 선체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인데, 귀 정당에서는 세월호 선체 조사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.

선체정밀조사는 특조위가 주체가 되어 실시해야 함.

4.4.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선체 인양 후 선체 조사가 마무리될 때('세월호 특조위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')까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이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.

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연장하여야 함.